



선거홍보물

노동시간 단축
전 직원의 만도
노조 통합

제14-02호 / 2025년 12월 22일 / 전화(031)680-5400-8 / md.kwmu.kr / 금속노조 만도지부 · 지회 임원 후보 일동

사측이 제시한 특별상여금, 어림없다!!

지난 16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의 특별상여금 제시안은 450만원이었습니다. 교섭에서 제시한 액수 포함 880만원 수준입니다. 사측은 과거 순이익은 18~19% 수준, 현재는 영업이익은 8%~9% 수준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측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사측은 매출 증가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답하라!!

아래 표는 매출액과 특별상여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만도의 성장은 매년 매출 증가로 증명되지만 순이익은 편차가 심합니다. 오히려 2010년이 더 높습니다.

구분	2010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	5조 초중반	8조 3,931억	8조 8,482억	9조 5천억 예상
당기순이익	1,913억	1,546억	1,582억	1,810억 예상
특별상여금	830만원	745만원	862만원	880만원(사측 제시)

위 표가 의미하는 것은 부품사인 만도의 성장은 △매출 증가 없이 불가능하고 △매출에 비해 순이익은 원형의 단가인하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2015년부터 만도는 생돈 240억(2025년 304억)씩 HL홀딩스에 바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상여금이 2010년 이후 줄어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증가에 기여한 전 직원의 노고에 사측은 답해야 합니다.

■ 특별상여금은 계속 늘어나야 정상!!

우리가 2011년 특별상여금을 현재와 비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일노조와 복수노조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노린 것은 복수노조를 통해,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노조에 대해 공들이고, 길들이기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를 억눌러왔다는 점입니다.

구분	2011년	2024년	2025년
특별상여금	1,070만원	862만원	880만원(사측 제시)

영업이익에 가뉘지지 않는 특별상여금!!

금속노조 만도지부 14기 임원 선거가 26일 치러집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모으려 합니다. 통상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사측의 일방통행에 맞서는 대응,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단일노조, 통합에 대한 마음을 고스란히 받들겠습니다.

■ 특별상여금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만도의 현금창출 능력에 기반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 작업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만도의 성장과 잠재력을 총수의 이익으로 귀결시켰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만도는 ‘개인금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따집니다,

구분	만도에서 투입된 자금	특별상여금 환산(순익 20%) 1인당 손해액
2013년	만도 → 한라건설 우회 지원 약 3,800억	약 2천 70만원
2015년	상표권 수수료(2015년 230억, 올해 304억)	매년 약 130만원(240억)
2024년	만도 → HL홀딩스 HL위코) → 로터스PE(825억)	약 450만원

□ 정몽원 회장은 되고, 직원은 안 되는 마술!!

우리는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 과정이 만도의 현금을 빼가는 과정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몽원 회장의 몸은 하나인데 마술 같은 분신술로 지주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 연봉을 모두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HL만도	24억 6,100만원	24억 5천만원	38억 2천백만원
HLD&I	14억 6,000만원	10억 8,460만원	15억 2천백만원
HL홀딩스	27억 9200만원	27억 6,500만원	26억 9백만원
HL클레무브	15억 2000만원	15억 500만원	17억 2천만원
합계	82억 3300만원	78억 460만원	96억 7천백만원

2013년 한라건설 우회지원금 약 3,800억이 없었으면, 한라건설은 사라지며 정몽원 회장은 졸지에 만도를 잃고 거리에 나앉아야했습니다. 만도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만든 배경은 한라건설 우회지원이라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 정몽원 회장은 만도(만도 + 홀딩스) 지분을 두 배로 늘려 그를 지배력을 높이고, 만도가 받아야 할 3,800억을 홀딩스와 마이스터를 합병하여 골뎡합니다. 만도가 지주사로 부터 헬라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정몽원 회장은 클레무브 연봉을 받을 수 없고, 두 자녀의 로터스PE를 지원하는 투자도 없습니다. 지주회사가 없었다면 정몽원 회장 50억 배당도 없습니다.